

중국의 전력기업 경영난과 전기요금 인상

1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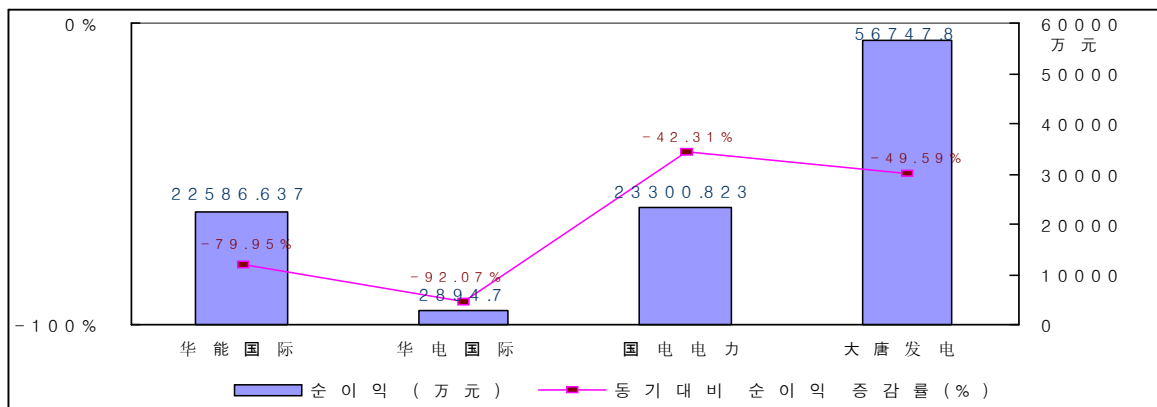
- 중국전력기업연합회(中國電力企業聯合會)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2008년 1월~5월 전력 산업 누계 적자액수가 전년 동기 대비 349.15% 증가한 345.15억 위안에 달했으며 동기간 4,835개의 전력기업 중 1,835개가 적자상태에 직면
- 이는 중국이 전력 생산의 80%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원료인 석탄가격이 급등한 직접적인 원인과 전력가격 결정 시스템의 모순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.
- 전력기업 및 발전소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전국 평균 전기요금을 킬로와트(Kwh)당 0.025위안 상향조정함.
- 그러나 이는 석탄가격의 인상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전력기업의 적자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.
-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발전소는 여전히 전력생산을 할수록 적자폭이 확대

2. 현황

가. 전력기업 매출이윤 감소

- 중국전력기업연합회(中國電力企業聯合會)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~5월 6,000 KW이상의 발전규모를 갖춘 4,835개 전력기업 중에서 1,835개가 적자상태이며, 그 적자 폭도 전년 동기대비 5.6%가 증가함.

<그림1> 주요발전기업 2008년 1분기 이윤



자료: 投资者报(7.28)

- 이 가운데 화력발전기업의 적자가 가장 심각한데, 이들의 적자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19.78%에 달함.

- 이로 인해 전력산업 전반의 매출이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.

- 2008년 1월~5월 전력산업 누계 적자액수가 전년 동기대비 349.15% 증가한 345.15억 위안에 이르며, 이는 전체 산업적자 총액의 69.4%를 차지
- 특히 화력발전기업은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고, 적자액이 전년 동기대비 396.68% 증가한 214.08억 위안에 달함(이는 전력산업 적자총액의 89.4%).

□ 전력 감독회 가격 및 재무 관리부(电监会价格与财务监管部) 탕쥔(唐俊)은 《발전기업 적자 상황 분석 및 대책논의(发电企业亏损分析及应对措施探讨)》에서 5대 발전그룹의 적자상태가 심각하다고 밝힘.

- 그는 상기 화닝그룹(华能集团), 따탕그룹(大唐集团), 화띠엔그룹(华电集团), 귀띠엔그룹(国电集团) 및 쑹띠엔투우그룹(中电投集团) 등 5대 발전그룹의 2008년 상반기 전력매출이윤의 적자가 전년 대비 동기 206% 증가하였으며, 이윤총액도 100% 줄었다고 지적

· 이밖에 상하이전력(上海電力)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2007년 상반기 순이익이 2.1억 위안이었으나, 2008년 상반기에는 적자액만 5.6억 위안에 달하는 경영난에 직면하였다고 언급

나. 발전(소)기업의 대출난

□ 이전에 은행의 우수 대출고객이었던 발전(소) 기업들의 적자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- 특히 일부 중소형 발전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대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가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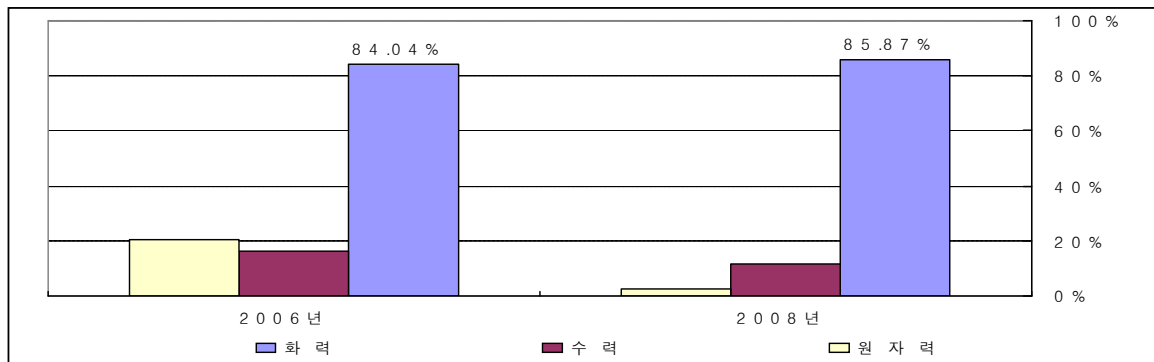
- 귀띠엔그룹 화동자회사(国电集团华东分公司)의 야오홍난(姚鸿男)은 소형발전소는 발전원료 구입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대형 발전소(기업)들에 비해 전력생산에 따른 적자폭이 클 수밖에 없으며 적자와 대출난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

- 따탕그룹(大唐集团)의 하청 발전소 중 한 곳은 원료구입을 위해 직원들로부터 자금조달을 받는 상황까지 발생

3. 전력기업 경영난의 배경

- 중국 전력 생산 구조는 화력발전이 전체의 8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, 최근 화력발전 생산의 주원료인 석탄가격이 급등세를 보임.

<그림2 > 중국 전력 생산 구조(각 연도 1~5월 발전량 기준)



자료: 2008년 中国电力产业运营报告(1-5月份):www.chinagate.com.cn

2006년 各月水火发电比较(1-5月份):www.drcnet.com.cn

- 발전소 전력 생산원가 중 석탄 구입비용이 7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, 석탄 가격은 최근 급등세를 보임.
- 2007년 전력용 석탄의 평균 가격은 톤당 370위안 수준이었으나, 2008년 6월 중국 석탄 최대 집결지인 친황다오(秦皇島)에서 발열량이 5,500Kcal/kg 이상의 석탄 가격은 톤당 840위안이었고 7월 초에는 톤당 1,010위안으로 상승
- 석탄은 시장가(市場煤)로, 전력은 계획가(計劃電)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업의 손실은 줄어들지 않고 있음.
- 중국 정부는 전력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용 석탄의 일부만 계획가로 거래하고 나머지는 모두 시장가로 거래하도록 한 반면, 전기요금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음.
- 석탄 공급상의 중점계약 불이행으로 시장가 석탄 구입량이 늘어남.

· 중점계약¹⁾에 따라 공급하기로 한 석탄량의 60%~70%만 실현되고 있어, 부족분은 모두 시장가로 구입해야 함.

□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전국 평균 전기요금을 킬로와트(Kwh)당 0.025 위안 상향 조정하고, 이는 석탄가격의 인상에 따른 연동조치가 아닌 전반적인 물가상승에 따른 조치라고 밝힘.

- 그 동안은 발전비용과 연동(煤电联动²⁾)해 전기요금을 인상

· 2006년 이전, 발전기업 에너지 비용 변동의 70%는 석탄값과 전기요금의 연동을 통해 서, 나머지 30%는 자체적으로 해결해 왔음.

- 비록 전기요금이 0.025위안 인상되었지만, 이는 전력망 건설 지원 성격이 강함.

· 재생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장려하는 만큼 상응하는 전력망 송배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원함.

· 또한 11.5 기간 동안 전력망 공사의 투자규모가 매년 3,000억 위안에 달하는데, 경영난에 따라 원금 및 이자상환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 인상이 이루어짐.

□ 그러나 대부분 발전기업 사이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기업의 적자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됨.

- 계획가격으로 관리되는 전기요금의 인상분은 석탄가격의 인상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임.

1) 발전소용 석탄 중 일정량을 시장가보다 훨씬 저렴한 계획가격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한 부분

2) 煤电联动政策:: 석탄가격의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일정한 주기를 두고 동반 조정하는 정책으로,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, 석탄가격이 전 주기 가격보다 평균 5% 이상 변동될 경우 그 원가 증가부분의 70%를 국가가 전기요금의 조정을 통해 지원해주는 제도임.

- 상하이전력(上海电力股份)의 양쑤푸(杨树浦)발전소와 민항(闵行)발전소는 7월1일 전기요금 인상으로 1도(1Kwh)당 0.435元の 가격을 받게 되었지만, 소모되는 연료비용이 각각 0.497위안과 0.465위안에 달해 여전히 적자 생산을 면하지 못한다고 주장
- 귀띠엔그룹 관계자도 전력을 1도 더 생산할수록 0.008위안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힘.

4. 대응 방향

- 전력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동방식이 아닌 시장을 통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임.
 - 관련 전문가들은 석탄가격과 전기요금 연동방식이 전기요금에 포함된 송배전비용 등 중간비용 부담을 모두 전력기업 또는 발전소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
 - 이들은 최근 석탄가격의 상승추세를 감안하면 전기요금을 최소 1Kwh당 0.1위안을 인상해야 전력기업들의 적자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,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고 있지만 인상추세는 막지 못하고 있다며, 전기요금의 시장화는 시간문제라고 인식
 - 이에 관해 화동전력감독국(华东电监局) 국장 치우즈젠(丘智健)은 전기요금의 시장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
- 중국정부 역시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바,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 에너지국장(国家发改委副主任、国家能源局长) 장궈바오(张国宝)는 “중국의 에너지 가격 개혁의 지향점은 시장원리를 따르는 것”이라고 밝힘(8.18).
 - 중국에너지연구회(中国能源研究会) 빠오윈차오(鲍云樵)는 전기요금을 비롯해 에너지 가격 개혁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제에너지가격 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

<참고 자료>

《经济观察报--投资者报》第14期, “电企倒闭政府电价改革”, 2008.7.28

“发电企业600亿亏损如何消化”, 2008.7.28

“第二产业月电费均增53亿”, 2008.7.28

《第一财经日报》, “电力困局求解”, 2008.9.1

(자료 정리: 중국사회과학원 인구 및 노동경제연구소 박사과정 이성란)